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에서 보낸 20년 세월의 한 부분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예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7년이 지나고,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날, 삼촌 라반은 둘째 딸 라헬 대신 큰 딸 레아를 장막에 넣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생각하며 레아와 첫 날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칠 년만 더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라헬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후에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해 6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란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처럼 여겨졌을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계획하지 않은 오랜 시간을 보낸 곳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란에서 야곱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과 결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가는 하나님의 손길

20년의 시간은 사기당하고, 원치 않는 고난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20년의 일을 표현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29:20 칠년을 몇 일 같이, 27절, 28절 라반의 제안에 그대로 합니다.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란의 시간을 통해 인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더 귀한 인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나의 죄악됨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이 인생을 살며 가장 잘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을 직면하기 전에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을 통해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거래하고,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속이고 끊임없이 거래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보다 단수가 훨씬 높습니다. 레아가 자신을 속인 사건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와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악 됨을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20년을 이곳에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라헬이 아닌 레아까지 아내로 주셨을까? 의문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계속 읽어 나가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 시간이, 이 결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형의 분노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가족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 중,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레아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내가 바라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시간, 결과 속에서 그를 빚어 가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29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1(금)	7/2(토)	7/3(주일)
시45-51	시52-58	시59-66	시67-70	시71-75	시76-78	시79-86

QT

이번 주 QT 말씀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1(금)	7/2(토)	7/3(주일)
시23:1-6	시24:1-10	시25:1-22	시26:1-12	시27:1-14	시28:1-9	시29:1-1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원하지 않는 시간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축복하신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